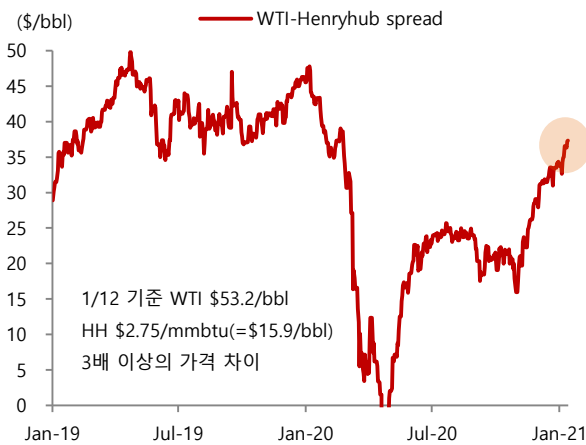


천연가스보다 많이 비싸진 석유

▶ 1/12 기준 석유와 가스가격 차이는 1년 래 최대, 3배 이상까지 벌어짐. 비록 석유 생산량이 가스 대비 회복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, 거꾸로 이는 산유량 증대 여력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. 유가의 추가강세 쉽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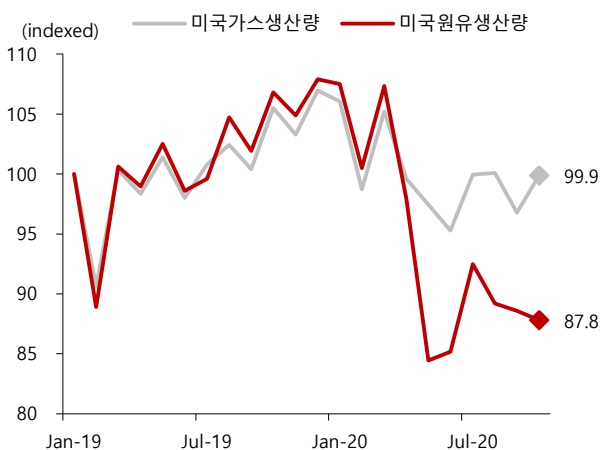
WTI(석유)와 Henry hub(가스)의 가격 차이



자료 : Bloomberg, SK증권

- 최근 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\$53/bbl 수준까지 도달하여 거의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중이네요
- 일단 유동성의 힘이 강하게 작용 중이고, 더불어서 최근 엑손모빌 등 한동안 외면 받았던 석유업종들이 저가매수를 명분으로 관심을 받다 보니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파악합니다
- 다만 유가상승에 있어서 부담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, 바로 천연가스와의 비교에서 입니다
- 1/12 美 헨리허브는 \$2.75/mmbtu인데, 환산하면 \$15.9/bbl 입니다. 같은 날 \$53.2/bbl은 이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이지요
- 실제로 둘 간의 spread는 현재 \$35/bbl을 넘어서서, 역시 거의 1년 시계열로는 가장 많이 벌어진 상황에 해당합니다

정상화되지 않은 석유 생산량, 그만큼 회복의 여지가...



자료 : EIA, SK증권

- 물론 이렇게까지 벌어진 원인은 있어 보입니다.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9년 1월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. 반면 석유는 여전히 같은 시점 대비 88% 정도에 불과합니다
- 즉 공급부담이 석유가 덜 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
- 다만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유가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록 미국 E&P 업체들의 증산여력도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
- 저희 미래산업분석팀은 지난 “CBR38. 차(車)가 부담되는 2021년 유가?”를 통해 단기 수요, 중장기 수요, 잉여공급, 유동성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상승은 쉽지 않음을 설명 드렸습니다
- 이 상황에서 천연가스와 가격 차이가 높게 벌어진 것은 더더욱 부담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 있겠지요
- 이모저모로 살펴봐도 유가의 추가강세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 •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